



강술지 유도 2관왕... 광주·전남 메달사냥 순항

〈여성정보과학교〉

이봉주 화려한 피날레

전국체전 은퇴 레이스 우승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39·삼성전자)가 제90회 전국체전에서 마지막 레이스를 우승으로 화려하게 장식했다. 통산 41번째이자 마지막 완주에 나선 이봉주는 21일 대회 남자일반부에 총남 대표로 출전, 한밭종합운동장 앞을 출발해 42.195km를 달리고 2시간15분25초의 기록으로 제일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올림픽에서 은메달, 2001년 세계 최고 권위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 등 한국 마라톤의 상징이었다.

특히 이봉주가 2000년 도쿄마라톤에서 세운 2시간7분20초는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 한국최고기록이다.

이봉주는 “마지막 경기를 끝내고 나니 큰 짐을 내려 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오늘 레이스는 기록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첫 폴코스에서 출전했던 전국체전에서 마지막 레이스를 치른 이봉주는 “앞으로 계획은 아직 생각하지 않았다. 당분간 쉬면서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여고부 78kg급·무제한급 우승 광주 금 5개, 전남 금11개 추가

여성정보과학교 강술지가 제90회 전국체전에서 전남에 첫 2관왕의 영예를 안겼다. 강술지는 21일 목원대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여고부 유도경기에서 +78kg급과 무제한급을 거머쥐면서 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날 강술지는 +78kg급 결승에서 조아라(충북체고)를 한판승으로, 무제한급에서는 유지연(전북영선여고)을 종합승으로 각각 제압하는 뛰어난 기량을 과시했다. 강술지는 이로써 올 춘계연맹전(4월)·용인대총장기(5월) 그리고 청소년선배대회(6월)에 이어 무려 4개대회를 휩쓸면서 여자유도 천하무적임을 입증했다.

청소년 국가대표인 강술지는 경기를 마친 다음날(22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바로 출국한다.

전국체전 이틀째 광주는 금 7개·은 5개·동 14개, 전남은 금 17개·은 12개·동 8개로 순탄한 메달사냥을 펼치고 있다.

▲광주=수영·레슬링·수영·정구에서 금 5개를 추가했다. 수영에서 황준호(광주체고)는 남고부 자유형 400m(3분56초97), 김



21일 대전 총무체육관에서 열린 제90회 전국체전 핸드볼 남고부경기에서 전남 무안고의 김준석 선수(맨왼쪽·7번)가 전북 제일고 수비수를 제치고 슛을 날리고 있다. /대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고은(하이코리아)은 여일부 평영 100m(1분 09초11)에서 각각 우승했다. 남고부 레슬링에선 장태성(광주체고)이 G76kg급 결승에서 김중우(대전)를 꺾고, 남자일반부 정구 개인단식에선 허경진(동구청)이 배한석(경기)을 각각 제압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우수에서 장용호(광주시체육회)가 태권도전 등 종목에서 1천909점으로 우승했다.

▲전남=유도·레슬링·수영·볼링 등 7개 종목에서 11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강술지 2관왕에 합입은 여고부 유도도 김성연(전남체육고)도 -63kg급에서 금빛소식을 전했다.

수영에선 남일부 박영호(전남연맹)가 자유형 400m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우승했고, 여고부 정다래(부영여고)는 평영 100m에서 1위로 끝냈다. 레슬링에서도 금 2개가 추가됐다. 남고부 이지연(광명골프고)이 G46kg급에서, 남일부 강래구(상구)가 G74kg급에서 정상에 올랐다.

〈강술지〉 (나주시청)은 24km 포인 트레이서에서, 양국 여대부 최지연(순천대)은 70m에서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여고 김경익은 국제레이저급에서 가장 먼저 끝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올림픽 금 못 판게 가장 아쉬워”

이봉주 일문일답

“마지막 경기 끝나니 큰 짐을 내려 놓은 것처럼 마음이 편합니다.”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39·삼성전자)는 은퇴 무대에서도 빛났다.

21일 열린 90회 전국체육대회 마라톤 남자일반부 경기에서 통산 41번째 폴코스 완주라는 대기록을 세우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까지 통과한 그의 얼굴에는 만감이 교차했다.

마지막 레이스를 지켜본 어머니 공옥희 씨를 비롯해 부인 김미수 씨, 어린 두 아들 우석, 승진 군 등 가족들과 잠시 포옹을 하고 인사를 나눈 이봉주는 “이제 좀 쉬면서 앞으로 계획을 고민해 봐야겠다”며 경기장을 떠났다.

다음은 이봉주와 일문일답. -은퇴 레이스를 마친 소감은.

●놓은 것처럼 마음이 편하다. -결과에 만족하나. ▲기록에 상관없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후회는 없다. -처음 폴코스를 뒀던 전국체전에서 은퇴 레이스를 펼쳤는데. ▲처음 뒀던 것도 체전인데 마무리도 체전에서 하게 됐다. 전국체전과 인연이 많은 것 같다. 무엇보다 마무리를 잘하게 돼서 기분이 괜찮다. -마라톤 인생에서 가장 아쉬웠던 순간은. ▲매 경기를 뛰고 나면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생각나는 것은 1996년 애크런타 올림픽에서 3초 차이로 우승을 놓친 것이다. 지나보니 아쉬움이 크다. -은퇴 레이스라 부담은 없었다. ▲후배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부담이 있었다. 오늘 뛰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레이스를 펼칠 나를 기다리는 많은 분께 좋은 모습도 보여 드리고 싶었다.

신종플루 이겨 낸 ‘금빛 스트라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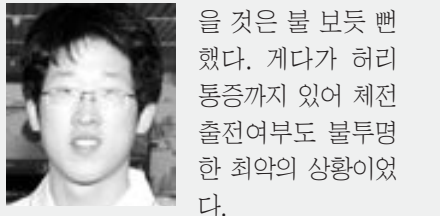
광양시청 최복음 볼링 우승

광양시청 소속 볼링국가대표 최복음이 신종플루를 이겨내고 전국체전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투혼을 발휘했다.

최복음은 21일 대전 월드컵볼링장에서 열린 남자일반부 결승에서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최복음의 금메달은 여는 대회와 다른 값진 의미가 있었다.

지난달 26일 태릉선수촌에서 훈련하고 있던 최복음은 신종플루 관절염을 받고 바로 퇴촌 조치되었다. 10여일간 전북대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완치 관절을 받고 재입촌했다.

전국체전을 코 앞에 두고 무려 2주 동안 운동을 못해 메달 사냥에 차질을 빚



을 것은 볼 보듯 뻔했다. 게다가 허리 통증까지 있어 체전 출전여부도 불투명한 최악의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복음은 자신을 돌봐준 광양시청 이지훈 감독에 대한 은혜를 저버릴 수 없어 고심 끝에 출전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최복음의 투혼은 금메달로 더욱 빛을 발했다.

최복음은 “경기 전 메달사냥에 대한 부담이 컸지만 금메달을 획득해 기쁘다. 남은 경기에서도 동료들과 호흡을 맞춰 좋은 결과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은 결의를 보였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광주에 여자실업핸드볼팀 재창단”

박광태 시장 기자간담회서

광주에 여자실업핸드볼팀이 재창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박광태 광주시장이 21일 대전에서 가진 전국체전 기자 간담회에서 “광주에 여자실업핸드볼팀을 만들겠다”는 발언에 따라 팀 창단 작업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창단업체나 일정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날 박 시장의 발언에 따라 창단 작업은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실업팀을 창

단한다면 공사나 공단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선수확보 어려움 등 현실적으로 올해는 창단 작업이 어렵고 빠르면 내년부터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에 여자실업핸드볼팀이 지난 1978년 창단된 광주시청팀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지도자와 선수들간의 불화로 결국 팀이 해체되고 말았다.

광주시청 핸드볼팀은 그간 수차례의 전국대회 우승으로 명실상부한 전국 최강의 팀이었으며, 이미영·성경화·문향자·오영란 등 대형 국가대표 스타를 배출하기도 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금 매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46-2 백악관 예식장

■대지면적 : 1770㎡(535평)
■지역 : 준주거지역
■건축면적

구분	면적(㎡)	용도
지하 1층	1147.07	주차장
1층	584.2	휴게음식점 외
2층	584.2	예식장
3층	493.65	예식장
4층	493.65	식당
5층	493.65	식당
계	3796(1148평)	

■추천용도
- 예식장, 병원, 교회, 학원, 대형마트, 사우나, 체육시설 등
■매대가 : 23억(대출금 13억 포함)

상담 전화 ☎ 011-625-8153

正心 正視 正行

명당 공인중개사 062)431-2834.
(H.P) 010-6480-2834

- ▶광주 북구 태평동 일각골 부근
답 864㎡(261평) 매매가 3,500만
-전 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빨나무 식재, 민물고기 없음
-도로접, 가족묘지 및 주말농장 적합
- ★전남 화순군 이암면 초칠리
임야 104,727㎡(32,000평) 매가 11,200만
-근로지역 일부포함, 직면계곡 및 저수지
연결. 전나무 식재, 목장용지 가능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다치리
임야 및 밭 73,000평, 평당 1200만
-도로접 임야이며 전 수령농은 관내나무
술. 당도지에 80평정농사, 별장소재
- ▶전남 담양군 칠선면 월계리
임야 1,670평 평당 10만
-계획관리지역 외 800평포함, 차량관리가능. 전방관용. 시설 및 전양주비지 적합.
- ▶전남 담양군 남면 호선리
대지 및 전 883㎡(500평), 평당 800만
-담양군이 바라보이는 주변, 전망대 대우 안호, 실사용가능 약 600평
-내부 건축가능한 대지 100평포함되어 전양주비지 및 시설 갖춘
- ▶담양군 금성면 복화리
임야 450,108㎡(13,642평), 평당 2만5천
-2차선도로에 접한, 관리지역
약 500평, 지형 완경사이며 전망관종음.
-민물고기 낚시, 농사, 목장 및 목장용지 가능
- ▶담양군 금성면 대곡리
대지 500평 및 1,000평, 평당 25만
-2차선도로와 접해있으며 전원주택, 공장, 창고도 적합
- ▶전남 담양군 대곡면 입석리
임야 53,487㎡(16,180평), 평당 2만5천원
-대형차량 진입가능, 토질안호 도자기
공장 포함, 민물고기 없음
-후자까지 안호
- ★전남 담양군 칠선면 월계리
임야 94,211㎡(28,475평), 평당 5만
-전체 계획관리지역, 민물고기 없음, 2차
선도로 약 90m 접
- 각종 공장용 시설물 설치 가능하고
후자까지 안호
- ▶전남 담양군 용평 일대리
임야 823,002㎡(24만 635평), 평당 5천원
-2차선도로접 관리지역포함, 차량관리
가능, 휴양림, 묘지 등 조성가능
- ★전남 장성군 심서면 심계리
전 2307평, 평당 18만원
-계획관리지역, 2차선도로 500여m 접
-도주주변 전·나무 170주 식재, 공장및 창
고 또는 투자용도로 적합
- ▶전남 장성군 진원면 신들리
임야 4,680㎡(1,418평), 평당 12만원
-차량전입 가능, 후자까지 무 안호
- ▶전남 무안군 해례면 양월리
대지 190,528㎡(57,783평), 평당 3만5천원
-2차선도로에 접한, 목장용지이며 현행
은 담으로 사용
- ★전남 보성군 겸백면 수남리
임야 2,567,157㎡(77만 265평), 평당 1만
-토지전세 임대가능, 현 법나루 조성, 80%
이상 개발 가능, 토질 및 전망 안호
- ▶전북 순창군 동계면 이등리
임야 20,185㎡(6,700평), 가격은 협의후 결정
-차량전입 가능, 현 매실농장 및 단감농장

※ 필요하신 각종 토지를 용도에 맞춰 최선으로 디해 구매드립니다.

해령법률경매

T:062)430-7117 H,P:011-629-0827 김법정 위치:법원전문로

지역	소재지	면적(㎡)	경매가	최고가	비고
군인부	지대	1005	2493만원	19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지대	441	4980만원	329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부구	지대	211	1560만원	96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지대	211	1560만원	96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사구	지대	585	2930만원	19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지대	258	520만원	29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지역	소재지	면적(㎡)	경매가	최고가	비고
군인부	지대	688	1390만원	13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지대	865	800만원	4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부구	지대	25388	3200만원	28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지대	2538	800만원	5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사구	지대	1827	800만원	4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지대	2201	3200만원	28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지역	소재지	면적(㎡)	경매가	최고가	비고
군인부	지대	58128	4900만원	29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지대	488	1900만원	7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부구	지대	2215	1500만원	12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지대	2589	400만원	2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사구	지대	1342/197	1300만원	8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지대	1823	1000만원	5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지역	소재지	면적(㎡)	경매가	최고가	비고
군인부	지대	19955	6500만원	55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지대	2538	3200만원	28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부구	지대	2638	3200만원	28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지대	2538	3200만원	28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사구	지대	2875	2000만원	15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지대	2201	3200만원	28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지역	소재지	면적(㎡)	경매가	최고가	비고
군인부	지대	1823	1000만원	5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지대	488	600만원	4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부구	지대	2538	3200만원	28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지대	2538	3200만원	28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사구	지대	2201	3200만원	28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지대	2201	3200만원	28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지역	소재지	면적(㎡)	경매가	최고가	비고
군인부	지대	1385	2300만원	15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지대	167	600만원	4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부구	지대	287/84	800만원	6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지대	180/85	1000만원	7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사구	지대	144/288	800만원	6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지대	148/102	800만원	6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지역	소재지	면적(㎡)	경매가	최고가	비고
군인부	지대	284/164	1300만원	12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지대	273/288	1000만원	7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부구	지대	284/164	1300만원	12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지대	273/288	1000만원	7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사구	지대	284/164	1300만원	12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지대	273/288	1000만원	7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지역	소재지	면적(㎡)	경매가	최고가	비고
군인부	지대	1685/133	3800만원	28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지대	284/164	1300만원	12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부구	지대	284/164	1300만원	12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지대	273/288	1000만원	7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사구	지대	284/164	1300만원	12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지대	273/288	1000만원	7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지역	소재지	면적(㎡)	경매가	최고가	비고
군인부	지대	2294	1500만원	7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지대	167/888	3000만원	20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부구	지대	1823	800만원	5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지대	1823	800만원	5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사구	지대	1342	1000만원	8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
	지대	8685	800만원	600만	2009년 1월 14일 경매